

## 여수산단 석유화학 위기... 지역경제에도 '빨간불'

LG화학 SM공장 가동 중단 이어 롯데케미칼도 일부 생산시설 멈춰 산단 가동률 떨어지고 수출 감소...전남도, 석유화학 위기대응 총력

전남 핵심 업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이 스티로폼 원료인 스티렌모노머(SM)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롯데케미칼도 일부 생산시설 가동을 멈추는 등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수출 감소, 수요 회복 부진 등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저가 밀어내기식 수출과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힘을 쓰지 못하던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몰락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남의 석유화학 수출이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공장이 몰려있는 여수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도 급감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경도 등이 들어왔다.

3일 전남도와 석유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지난 2일 여수산단 내 1~3공장 가운데 2공장 가동 중단 절차에 돌입했다. 생산시설을 비우고 질소를 충전하는 이른바 박스업(Box-Up)으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다. 박스업 절차는 점검 혹은 폐쇄 전 가동 중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상반기 페트(PET) 생산라인을 멈춘데 이어 에틸렌글리콜(EG), 산화에틸렌옥사이드(EOA) 생산라인도 중단했다. 2공장 내 5개 공정 중 3개 공정이 멈춘 것으로,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 413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올해에만 누적 6600억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공장 폐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황을 지켜보면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만의 문제도 아니다. LG화학 석유화학부도 올 3분기 38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도 310억원 적자를 봤다.

여수 산단 분위기도 심각하다.

여수산단 내 NCC(나프타분해설비) 올 1~3분기 가동률은 평균 78.9%로, 지난 2021년 대비 17.8% 떨어진 상태다. 최근 4년 간 연간 감소율 평균(-6.1%)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27년에는 60.5%까지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여수산단 생산액도 지난해 누계 84조 1918억원으로 전년(99조 4634억)에 견줘 15.3%나 감소했다. 지난해 누계 수출액도 약 42조원에 불과해 전년도 수출액 50조원에 견줘 16.0% 떨어졌다는 게 전남도와 여수시 분석이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은 지역경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수지역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업황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석유화학 산업 불황이 여수 지역 자영업자 및 지역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전남지역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당장, 올해 1분기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7.7%로,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다. 2022년 1분기 공실률(22.7%), 지난해 같은 기간(25.9%)보다 높다. 올 8월 말 현재 여수시가 거둬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557억원으로 지난해(1672억원)보다 66.7%나 줄었다.

올 상반기 여수의 법인지방소득세는 490억원으로 전년(1599억원)보다 무려 69.3%나 줄어 건축 재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정부는 연내 기업 간 자를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자구책 외에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도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산업부 주도로 열린 3개 시도 석유화학산단 간담회에서 충남 대산, 울산과 산업기반이 다른 여수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곧 지역경제의 위기임을 지적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주요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앞서, 전남도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11월 착수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석유화학업계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10월부터 정부에 ▲산업용 전기료 인하 ▲납사 관세면제 ▲석유수지 관세 불균형 해소 ▲대기배출 허용기준 완화 ▲플라스틱 최소 발열량 규제 해소 ▲폐수 공공관료 설치 지원 ▲전력 및 공공요금 공급시설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하고 있다.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토론회를 통해 36개 사업 5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지역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석유화학 산업업황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남도와 여수는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수산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3년만에 재개

13일 정부서울청사서... 광주시 "정부 부처와 한자리 큰 의미" 이해 당사자 무안군 불참키로... '반쪽짜리 회의' 실효성 우려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3년여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주요 당사자인 무안군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정부 주도의 모임이 다시 재개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021년 5월 제2차 회의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행안부 차관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은 현재까지 불참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무안군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예비 이전 후보지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아닌 만큼 당사자도 아니다"면서 "무안군 제공받은 군공항 이전지 계획이 없으며, 공항 활성화 위한 자체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강기정 광주시장의 3개월에 걸친 줄기찬 논의구조 확대 요청을 수용하고, 정부는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민주당은 민간·군 공항 해결 등을 담은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시장도 민간·군공항 이전 관련 '12월 데드라인' 방침을 철회하고, 그동안 무

안군을 상대로 펼쳐왔던 시 주도 민간·군 공항 이전 활동도 잠정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재 그동안 무안군민을 상대로 직접 홍보 기능을 수행해 왔던 '열린 대화방'을 비롯한 무안 미래 비전레비전 토론회와 여론조사 중시 등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공항 이전 활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범정부 협의체 불참 소식과 관련해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3년 만에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관련 협의체가 재가동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협의체와 민주당 TF가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에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남도와 함께 무안군을 설득하고 정착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면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3,000평의 잔디광장 조성  
열린문화마당, 수량근린공원

만남의장소 상징광장 조성  
잔디광장, 수량근린공원

시민문화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수량근린공원

내일이 빛나는 광주  
기회도시 광주

수량근린공원 등 9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90%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하였으며 초과된 민간개발 수익은 다시 시민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수량근린공원 조감도. 상기 이미지는 위원회 심의 및 영향평가, 실시기획인가협의, 시민의견변명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